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전북지역 비상시국회의 〈결성 선언문〉

- 일시: 2016년 10월 31일(월) 18:00
- 장소: 전주 농업인회관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전북지역 비상시국회의

원불교사회개혁교무단전북지부,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희망나눔재단,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주/전북지회소비자정보센터, 시민행동21, 익산참여연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YWCA협의회,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쌀생산자협회전북본부, 전북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주YMCA, 고백교회,
진보대통합추진위원회, 전북혁신학교학부모협의회, 더불어 이웃, 가톨릭농민회전주교구연합회, 교수노조전북지부,
노동당전북도당, 전북녹색당,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전북지부, 민중연합당전북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전북도당, 생명평화기독행동,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북도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북본부, 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전북녹색연합, 전북민예총, 전주민예총,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북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인권교육센터,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진보연대, 전북평등학부모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정의당전북도당, 진보광장,
전주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천도교한울연대전북지부, 5·18구속부상자회전북지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전북본부 (이상 51개 단체, 무순)

경과 보고

○ 최순실 국정농단 박근혜 퇴진 전북지역 비상시국회의 소집

- 2016년 10월 26일(수)
- 제안단위: 백남기농민 국가폭력 진상규명·책임자처벌 전북투쟁본부
민중총궐기전북투쟁본부(준)
- 18개 단체 및 진보정당 대표자 및 활동가 참여하여 헌정질서를 유린한 박근혜·최순실게이트에 대한 전 사회적 분노 확인, 박근혜 정권의 퇴진 등 실질적인 시국투쟁을 위한 전북지역 단위의 필요성에 공감함.

○ 박근혜 정권 퇴진! 전북지역 시국선언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10월 27일(목) 11:00
- 장소 : 전북도청 앞
- 참가단체 :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전북지역 비상시국회의(준)

가톨릭농민회전주교구연합회, 녹색당전북도당,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전북지부, 민중연합당전북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전북도당, 생명평화기독행동,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북도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북본부, 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 전북녹색연합, 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 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전주지부, 전북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인권교육센터,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진보연대, 전북평등학부모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정의당전북도당, 진보광장, 전주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천도교한울연대전북지부, 5·18구속부상자회전북지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전북본부 (한글순, 2016년 10월 27일 오전 9시 현재 총 30개 단체참여)

○ 박근혜 정권 퇴진! 전북지역 1차 시국(촛불)집회

- 10월 28일(금) 오후 6시 30분, 전주 풍남문광장-새누리당 행진
- 주최 : 전북비상시국회의(준)
- 참여인원 : 약 300명

○ 박근혜 정권 퇴진! 전북지역시국대행진

- 10월 29일(토) 오후 4시, 전주세이브존-풍남문광장
- 주최 : 민주노동전북본부
- 참여인원 : 500명

결의사항

○ 시국회의 구성

- (1) 원로단 : 미정
- (2) 상임공동대표단 : 이세우(전북녹색연합), 윤종광(민주노총), 조상규(전농), 향후 확대
- (3) 대표자회의 : 시국회의 소속단체 전체 대표자
- (4) 상황실 : 상황실장 유기만(민주노총)

○ 시국회의 주요 요구

- 박근혜 정권 퇴진
- 민중총궐기 요구안 (13개 항목 및 3개 특별조항)

○ 시국회의 향후 계획

- 결성선언문 안에 포함함.



결성선언문 낭독 모습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전북지역 비상시국회의 결성선언문〉

- 오늘 우리는 ‘박근혜 게이트’ 를 통해 전국적으로 들끓고 있는 국민들의 분노를 이어 받아,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직접행동을 확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는 헌법의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한 박근혜 정권에 맞서 어떤 흔들림도 없이 정권퇴진운동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 국민들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꼬리자르기로 자신들의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 그러나 현 사태는 청와대 인사 및 내각 교체 정도로 해결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흔들림 없는 국정운영이 아니라 즉각 퇴진해야 한다. 또한 새누리당 역시 현 정질서 파괴의 책임을 지고 해산해야 한다.
- 야당은 야당으로써의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 퇴진은커녕, 내년 대선국면만을 바라보며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을 뿐이다. 야당은 새누리당과 특검과 거국중립내각 구성이란 방안으로 국민의 분노를 수습하려고 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박근혜 정권 퇴진을 걸고 전북지역에서 직접행동에 나서고자 한다.
- 우리는 노동자, 농민, 청소년, 청년, 여성, 소수자, 생태, 종교계 등 전북지역 각 현장의 모든 도민들이 민중총궐기를 비롯한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에 함께하도록 조직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박근혜 정권 퇴진’ 과 함께 민중총궐기 요구안의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행동을 결의하고 실천할 것이다.

하나, 11월 12일까지 매일 박근혜 정권 퇴진 시국촛불을 매일 진행한다.

하나, 11월 5일 1차 전북도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하나, 11월 12일 서울에서 열리는 민중총궐기에 참여한다.

하나, 11월 19일 2차 전북도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하나, 각계각층 시국선언 및 성명 발표 등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해 모든 행동을 한다.

2016년 10월 31일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전북지역 비상시국회의